**공정거래위원회 자기소개서**

직무 : 시장감시국

**1. 지원동기**

기업의 독과점 규제, 올바른 노동의 현장을 만든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의 독과점 운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가 제공하고 있던 음악 및 어플 서비스 등을 시도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4년간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수사관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고, 업무에 대한 애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부터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업무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노동자들의 문제는 곧 기업의 행위로부터 발생했기에 자연스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털사이트의 경우도 타업계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였습니다. 누군가에겐 생계가 걸린 시장에 단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분야를 침범한 포털사이트의 방침은 누가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의 올바른 경쟁을 위해선 이러한 독과점을 방지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노동자들이 속해있는 직장을 공정한 잣대로 규제하는 업무를 하고 싶었습니다. 바람직한 노동의 현장을 만들고, 기업에겐 긴장감을 부여하는데 제 능력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원하게 된 이유입니다.

**2. 장점**

속전속결! 멈추지 않는 에너지맨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에너지맨으로 통합니다. 어떤 일에도 앞장서는 성격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저는 늘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 속에 직접 뛰어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전후상황을 파악하여 일의 진행을 신속하게 전개해나갑니다. 덕분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빠른 업무처리 능력은 제 성격이 급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급한 성격은 제 단점이기도 합니다. 뭐든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다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피로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가끔은 쉬는 날에도 일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맨이라는 별명처럼 멈추지 않는 추진능력은 친구관계에서도 발휘되곤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선물을 구매할 때도 빠른 결정력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급한 성미가 때론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에너지맨으로서의 저의 능력을 한껏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3. 공직생활에서 느낀 점**

누구나 할 수 없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할 당시 제 업무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죄를 수사하고, 노동동향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을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은 다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의 문제이면서 제 가족과 지인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내 일과 같이 생각하고 처리할 수 있었고, 그만큼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하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노사분규로 인해 회사와 노동자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집단체불의 경우는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례였습니다.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기업이 이를 간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다 더 강력한 법률이 있어야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직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전처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에서도 늘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에 정진하고 싶습니다.

**4. 업무수행과정에서 달성한 업적**

민원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까지 함께 하는 적극적인 노력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4년간 근로감독관으로 수사관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직적인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기업과 노동자의 갈등을 직접 목격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사법적인 처리를 하는 행정심판소송을 이끌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엔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기도 하나 저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직접 사법처리를 하기도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저의 노력의 결과로 민원인들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기본적인 근로감독관의 업무이나 적극성을 띠면서 민원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달렸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저는 속전속결하는 저의 장점을 활용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까지 민원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업무수행능력과 업적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에서도 발휘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5. 본인과 조직의 비전**

공정한 성장과 경쟁을 주도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소비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온 기관입니다. 특히 시장감시국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포털사이트의 독과점 문제를 규제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시장감시국이 나아가야할 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포털사이트의 사옥을 찾아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업체의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고 기업에는 적당한 긴장감을 조성해줄 수 있었습니다. 향후 대기업이 가격이나 수량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꾸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행위 없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투명한 기업에겐 박수를 쳐주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학에 발맞춰 성장하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바람을 불러 일으키듯 조직 안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고, 공정한 성장과 경쟁을 주도하겠습니다. 조직에 적응하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업무를 주도하고, 후배들을 이끄는 선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에서 제 비전을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